

일제 말기 학교체육 전문기관의 제도화 시책

최현우*

〈차 례〉

- 머리말
- 체육관제(體育官制)의 시행
- 조선학교체육진흥회의 창설과 운영
-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일제 말기 조선총독부가 창설한 학교체육 전문기관인 '체육관(體育官)'과 '조선학교체육진흥회(朝鮮學校體育振興會)'에 주목하여 이들 기관의 설치 배경,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8년 12월과 194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학무국에 체육관을 임명하였다. 처음 임명된 체육관은 체조를 연구한 인물로, 조선인 학생의 신체 및 체력의 '표준형'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선총독부는 그 결과로 산출된 '표준형'을 근거로 중등학교 입학시험에 체력검사를 추가함으로써 학생들의 운동을 촉진하려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운동 강화를 통한 체력 향상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941년 4월, 의학을 전공하고 생리학을 연구한 인물을 새로운 체육관으로 발탁하고 학교의 급식 상황, 위생·체육 시설 등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1942년 4월, 조선총독부는 학무국장을 회장으로 하는 조선학교체육진흥회를 창립하였다. 그에 따라 이 단체의 지부로 '대학전문학교체육진흥회'를 비롯하여 각 도에 학교체육진흥회가 조직되었다. 조선학교체육진흥회의 발족과 함께 등장한 대학전문학교체육진흥회는 각종 대회의 개최를 통해 조선총독부가 마련한 학교체육 지도방침을 구현하였다. 아울러 조선장학회와 연합하여 재일 조선인 유학생의 체육 연성(鍊成) 활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각 도에 조직된 학교체육진흥회는 지역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체육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사업의 대상을 학생에 한정하지 않았다.

이들 학교체육 전문기관의 정책 기획, 조사 연구와 정책 수행 활동은 일본의 침략전쟁에 조

* 국립군산대학교 역사학과 조교수

선인 학생을 동원하려는 조선총독부 교육정책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주제어] 체육관(體育官), 조선학교체육진흥회, 대학전문학교체육진흥회, 식민지 체육, 체육정책, 체육교육, 체력검사

1. 머리말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국가총동원체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을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이른바 내선일체(內鮮一體)와 인고단련(忍苦鍛鍊)을 내세우며 조선인의 사상과 신체에 대한 통제를 확대해 나갔다.

조선총독부는 조선 사회의 여러 계층 중에서 특히 학생들에 주목하였다. 제도화된 교육체제 아래에서 일정한 지식을 쌓은 학생들은 기본적인 일본어 실력 또한 갖추고 있었기에 일본의 침략전쟁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집단으로 상정되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조선교육령」을 비롯한 각종 법령을 개정하고 교육시스템을 개편함으로써 조선인 학생들을 ‘황국신민’으로 양성하는 교육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내선일체’의 ‘황민화’ 교육과 더불어 조선총독부는 흡사 군대식 훈련과 같은 체육교육 체제를 형성해 나갔다. ‘인고단련’의 이름 아래 학생들은 군인이 수행하는 갖가지 활동을 체력 증진의 방편으로 익혀나갔다.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의 전장이 확대될수록 식민지 조선의 학교체육은 더욱 치밀하고 강고하게 학생들의 신체를 통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작업을 위해 학교체육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였다. 학무국에는 ‘체육관(體育官)’이란 관직을 별도로 두어 학생들의 신체적 연성을 위한 각종 조사 연구를 담당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하였다.¹⁾ 또한 식민지배적 체육교육 정책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조선학교체육진흥회(朝鮮學校體育振興會)’를 조직하여 촉매로 활용하였다.

1) 이하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체육관’은 모두 이 관직을 의미한다.

이들 기관은 일제 말기 조선총독부가 입안하고 시행한 군국주의적 체육 교육 정책의 첨병이었기에, 그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은 해당 시기 교육의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주제에 천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제 말기 체육교육은 한국근현대사의 체육교육을 시기별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제의 ‘국가총동원체제’에 관한 연구가 진척되는 과정에서 해당 시기 체육교육이 군사적 목적 아래 변화된 사실이 실증되었다. 이를 통해 일제가 전시 체제 아래 식민지 조선의 학생들을 병력으로 양성하고자, 체육교육 정책과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신체까지도 강하게 규율한 사실이 드러났다.²⁾ 앞서 언급한 체육관과 조선학교체육진흥회는 이러한 시책을 총괄한 주체이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 교육의 실태를 보다 선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활동을 구명(究明)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제 말기 학교체육을 주도한 주요 기관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시기 체육교육과 조선총독부의 식민지배체제를 파악하는 하나의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체육관제의 시행 과정과 체육관의 임용 배경을 검토하고 그들의 활동을 정리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3장은 조선학교체육진흥회의 조직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겠다.

2. 체육관제(體育官制)의 시행

1931년 만주사변 이후 군부가 일본 정치를 장악하면서 일본은 점차 파쇼

2) 김점만, 「韓國學校體育의 歷史的 背景과 그 病弊에 對한 考察: 初等體育을 中心으로」, 『논문집』 2(1), 진주교육대학교, 1968; 노영구, 「日帝時의 初等學校 體育科 教育課程에 關한 考察」, 『논문집』 28, 대구교육대학교, 1993; 손준중, 「근대교육에서 국가의 몸 관리와 통제 양식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6(1), 안암교육학회, 2010; 신주백, 「일제 말기 체육 정책과 조선인에게 강제된 건강」, 『사회와 역사』 68, 한국사회사학회, 2005; 이학래, 「日帝 末期의 韓國體育史 研究-軍國主義의 性格을 中心으로-」, 『한국학논집』 15,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9; 하정희·손환, 「일제강점기 황국신민체조의 보급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20(2), 한국체육사학회, 2015; 金誠, 「朝鮮半島における植民地主義とスポーツに関する研究」, 神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3; 西尾達雄, 『日本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學校体育政策』, 明石書店, 2003.

적 군국주의 체제로 개편되었다. 군부와 극우 세력의 주도아래 일본은 각종 군축조약의 폐기를 선언하며 적극적인 군비 확장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본격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일본 군부의 대표적인 인물인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재임: 1931.6.~1936.8.]의 치세 아래 본격화되었다.³⁾

우가키 총독 집권기에 들어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에 대한 군사 훈련을 강화하여 청년훈련소를 확충하는 한편, 육군 현역 장교를 학교에 배속하여 시행하는 교련을 확대하였다. 1926년 경성사범학교·공립중학교 10개교 및 일본인만을 수용하는 실업학교 3개교 등지에서 처음 도입된 교련은 1930년대에 들어와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에까지 실시되었다.⁴⁾ 이와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1937년도부터 학무국에 체육과 관련된 시학기관으로 체육관 설치를 계획하고 예산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⁵⁾

이러한 논의는 체육 진흥에 힘을 쏟는 일본의 사정과 무관하지 않았다. 일본은 이른바 과학적 체육의 연구를 목적으로 1925년 문부성 산하에 ‘체육연구소’를 설치하였다.⁶⁾ 곧이어 1928년 5월 문부성은 “체육운동의 지도 감독에 일층 주의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학교위생과’를 ‘체육과’로 개칭하였다.⁷⁾ 1929년 11월에는 문부대신의 자문기관으로 ‘체육운동심의회’가 설치되었다.⁸⁾ 이 심의회는 ① 체육운동의 합리적 진흥 방책, ② 체육운동 경기의 건전한 시행방법, ③ 학교 체육운동의 관리를 일층 합리화하는 방책, ④ 국민정신 충동원에서 체육운동상 특별하게 실시할 사항을 문부대신에게 답신하였다.⁹⁾

3) 강동진, 『일본군대사』, 한길사, 1985, 362~389쪽; 안자코 유카,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48~65쪽.

4) 조선총독부, 박찬승 외 역주,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中, 민속원, 2018, 852쪽.

5) 二次初等校増設と専門教育の擴充, 『동아일보』, 1936년 7월 9일, 2쪽.

6) 閣議 體育官制定まる, 『경성일보』, 1924년 10월 22일, 2쪽; 『體育研究所官制』, 『日本官報』, 1924년 10월 25일.

7) 「文部省分課規程中改正並文部大臣官房體育課事務分掌規程制定」, 國立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 請求番號: 昭59文部01134100; 『日本官報』, 1928년 5월 8일.

8) 『日本官報』, 1929년 11월 29일.

아울러 일본은 각 부현(府縣)에서 임시 촉탁으로 근무하는 체육 담당 관료를 전임으로 선발(주임관 대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체육운동직원제(地方體育運動職員制)」(칙령 제146호)를 제정하여 시행하였다(1930년 8월 8일 공포).¹⁰⁾ 나아가 일본은 1937년 3월에 들어 대신관방의 학교위생관(學校衛生官)을 대신하여 체육관을 두었다.¹¹⁾

일본과 달리 식민지 조선의 체육관은 1937년에 들어서도 임명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중일 전쟁의 전장이 확대되고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자는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체육관 설치는 이듬해인 1938년 12월에 실현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38년 2월에 「육군특별지원병령」(칙령 제95호)을 공포하고 같은 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¹²⁾ 조선총독부는 「육군특별지원병령」의 시행을 전후한 시기에 전국의 청년단원(靑年團員), 경성부의 청년훈련소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조선총독부가 지원병 대상으로 삼은 청년층을 포함하여 조선인의 신체 발달 및 건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본격적으로 조선인의 신체 및 체력 발달에 관심을 두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다.¹³⁾ 「육군특별지원병령」의 시행에 뒤이어 학무국에 체육문제를 전담하는 시학기관인 체육관이 설치된 사실은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이해할 수 있다.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최근 시국 관계 기타 여러 가지 실정상 학생, 생도들 체위력 향상과 체위 증진이 초미의 시급한 문제임에 비추어 학무국 내에 각 학원(學

9) 崎田嘉寛・若槻稜磨, 「體育運動審議會「體育運動ノ合理的振興方策ニ関スル件答申」(1930)의成立過程-長与又郎日記を手掛かりとして-, 『體育學研究』 38, 體育史學會, 2021, 1쪽.

10) 全國の各府縣に體育官を置く, 體育運動振興の一策して文部省で立案中, 『경성일보』, 1930년 3월 5일, 7쪽; 體育振興の一策に府縣に體育官新設, 文部省で立案中, 『조선신문』, 1930년 3월 5일, 5쪽; 體育振興策으로 體育官新設 文部省立案中, 『중외일보』, 1930년 3월 6일, 1쪽. 『日本官報』, 1930년 8월 8일. 각 부현에서 체육을 담당하는 관료인 '체육주사(體育主事)'는 '전일본체육운동주사회'를 조직하여 국민체력관리, 체력검정, 초등학교 무도(武道) 등에 관한 정책 시행을 담당하였다.

11) 文部省 編, 『學制百年史』, 1972.

12) 『朝鮮總督府官報』, 1938년 2월 26일.

13) 김고은, 「전시총동원을 위한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청년층 체력향상책의 실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9~20쪽.

園)의 체육운동 강화 철저 기관을 금년내 신설하기로 되어 그 책임자로 현재 광도
고등사범학교(廣島高師) 교수로 있는 평송구일(平松久一) 씨를 기용하기로 결
정되었다. 이 기관은 아직 총독부 관제가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우선 고등관 대우
촉탁으로 임명하였다가 명춘 관제 통과를 기다려 내지(인용자 주: 일본)와 같이
체육관(體育官)으로 승진시킬터이다. 이 신설되는 학원의 체육운동 강화 기관
의 내용인즉 대개 다음과 같은 요점을 중심으로 세계를 통하여 상당히 뒤진 조선
학도의 체력을 우선 급히 증진시키자는 것이다.

일, 학생 생도 체력 향상에 관한 사항

이, 학생 생도 체력 향상의 시설에 관한 사항

삼, 학생 생도 체력 조사에 관한 사항

사, 학생 생도 체육 운동의 조사 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오, 체육 운동 지도자 교양에 관한 사항¹⁴⁾

인용한 기사와 같이 조선총독부는 전시 체제 아래에서 학생들의 체위를
향상하고자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관으로 학무국에 체육관을 설치한 것이
다. 당시 학무국장인 시오바라 도키사부로[鹽原時三郎]와 학무과장 다카
오 진조[高尾甚造]는 일본으로 출장을 가서 체육관의 인선에 힘을 쏟았다.
당초에는 히로시마[廣島]고등사범학교 교수 히라마쓰 큐이치[平松久一]
가 학무국 체육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같은 학교 교수인 다
카마쓰 마타스케[高松又輔]가 체육관으로 부임하였다.¹⁵⁾ 체조를 집중적으
로 연구한 다카마쓰 마타스케의 활동은 그가 학무국 체육관으로 임용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¹⁶⁾

14) 學園體育運動強化에 拍車 學生體位向上目標 調査・指導機關設置, 『조선일보』, 1938년 12월 3일(석간), 2쪽.

15) “教育朝鮮”의 總本營 嶄新한 陣容을 整備, 『매일신보』, 1938년 12월 10일, 2쪽; 教學陣強化 活動範圍 等を 協定, 『동아일보』, 1938년 12월 10일, 2쪽.

16) 「元北海道庁技師奥野義雄外四名特旨叙位ノ件 / 元専売局技師鈴木寛、退職判事高山三郎、元広島高等師範学校教諭高松又輔、元電信官野村義男」,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 A11114673800; 高松又輔, 「體操指導の實際」・「體操科指導案」, 広島高等師範学校附属中学校中等教育研究会 編, 『中等教育に於ける各科教授法の新研究』, 京極書店, 1938 참조.

체육관 설치와 동시에 조선총독부는 학교를 포함하여 여러 기관을 포괄적으로 시찰·조사하며 사상통제에 주력하는 교학관(敎學官)을 학무국에 설치함으로써,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일본의 역사와 정신문화를 중시하는 이른바 교학쇄신(敎學刷新)에 힘을 쏟았다.¹⁷⁾ 교학관은 전문학교를 중심으로 '일본학' 과목의 도입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 방안 모색에 힘을 기울였으며, 교학연수소·중견청년훈련소를 비롯한 각종 연성 기관과 강습회에서 강사로 활동하였다. 또한 교학관은 조선총독부가 1941년 일본에 조직한 조선장학회에 파견되어 조선인 유학생에 대한 지도 업무를 총괄하였다. 일본의 침략 전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들은 연희전문학교와 같은 사립 전문학교 교장직을 차지하여 '국가총동원체제'에 앞장섰다.¹⁸⁾

요컨대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학생의 신체와 정신 양 분야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여, 이들을 침략전쟁에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938년 12월 학무국에 체육관과 교학관을 설치한 것이다. 조선총독부가 체육관과 교학관을 '총후(銃後) 학원 재건설의 총참모본부'로 여긴 사실은 이들 기관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준다.¹⁹⁾

다음 자료에 나타나듯이 체육관의 첫 번째 당면 과제는 조선인 학생들의 신체 및 체력의 표준을 설정하는 일이었다.

학원(學園)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이번 학무국에 새로 부임한 체육관(體育官)이 이에 대한 연구와 앞으로의 방침을 세워 적극적으로 이 방면에 힘을 쓰게 되었다. 그리하여 장래 사회를 짐지고 나서는 전문학교, 중학교, 소학교의 1백 5

17) 일본 정부는 1935년 11월 교학쇄신평의회(敎學刷新評議會)를 설치하여 파쇼적 군국주의에 순응하는 국민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교학쇄신평의회의 건의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37년 7월 교학국(敎學局)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사상통제에 나섰다. 식민지 조선에는 별도의 교학국이 설치되지 않고, 학무국에 교학관이 특설되었다. 「文部省官制中改正ノ件」,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 A03033300200; 「敎學局官制」,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 A03033435000; 『日本官報』, 1935년 11월 18일; 『日本官報』, 1937년 6월 23일; 文部省에 敎學局, 『매일신보』, 1937년 4월 6일, 2쪽.

18) 최현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교학관계와 식민지 교육행정」, 『국학연구』 47, 한국국학진흥원, 2022, 511~520쪽.

19) “教育朝鮮”의 總本營 嶄新한 陣容을 整備, 『매일신보』, 1938년 12월 10일, 2쪽.

십만 청소년에 체위 향상과 체력 증진에 대한 근본 방침을 세워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를 할터인데, 제일 먼저 이 체육관이 착수할 것은 대학, 전문, 중등, 소학 등의 아동 생도 학생들의 표준형(標準型)을 작성해 가지고 이 표준형에 따라 일정한 운동을 시키고 보건 위생상으로 교정을 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이 표준형은 학원과 연령에 비추어 적어도 “이 만한 체격과 체질을 가져야 한다.”는 한 표준을 작성한 다음, 이 표준에 달할만한 운동을 시켜서 체력을 증진시키고 체질의 변화를 시켜 비상시 학원에 들어맞는 육탄적인 체격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건전한 정신을 담은 훌륭한 바탕이 되도록 하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 표준형을 작성하고자 우선 각 학원의 체력 조사를 일률적으로 행한 다음, 이 조사표에 따라서 새로운 방침을 세울터이며, 이 표준형 속에는 1백 미터를 뛰는데는 적어도 12초 내지 13초가 걸려야 한다는지 주폭도(走幅跳, 인용자 주: 멀리뛰기)는 4미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바 이번에 행할 조사는 이러한 실력을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²⁰⁾

당시 조선에서는 학생의 체력을 검정하는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다카마쓰 마타스케는 일본 각지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연령별 운동능력표준표」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1939년 4월부터 경기중학교를 비롯한 경성부 10여 개 학교에 그 표준표를 활용한 체력검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다카마쓰 마타스케는 자신이 제작한 운동능력표준표를 수정해나갔다.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진을 비롯한 각계 관련 인사들의 자문도 운동능력표준표의 제작과 수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²¹⁾

이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조선총독부는 1939년 10월 「중등학교 제1학년 입학자 선발 요령」이란 이름의 학무국 통첩을 통해 중등학교 입학시험에 체력검사를 추가한다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종래 체격, 질병 등을 관한 신

20) 體格, 體質에 “標準型” 大・中・小學 一律로 實施, 新任 體育官이 研究를 進行, 『매일신보』, 1938년 12월 30일, 2쪽.

21) 運動能力標準表, 『조선일보』, 1939년 4월 16일(석간), 2쪽; 入試의 新指針 體格檢査標準發表, 『동아일보』, 1940년 1월 27일(석간), 2쪽; 高松又輔, 「標準對照體能檢査票(參考案)に就て」, 『文教の朝鮮』 173, 朝鮮教育會, 1940년 1월. 당시에는 체력검사를 주로 ‘체능(體能)검사’ 혹은 ‘체능조사’로 표현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체력검사’라 지칭하였다.

체검사에 신체 활동을 측정하는 검사가 추가된 것이었다. 또한 필답고사에
서 일본어의 비중이 커졌으며, 응시자에 대한 초등학교장의 소견서가 점수
화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상급 학교 입학시험의 불합리와 폐해를 제거하고
학생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의 근본 목
적은 ‘국가의 요망에 부응할 강건한 신체와 왕성한 정신력을 가진 황국신민
양성’이었다.²²⁾

1940년 1월에 「체격 및 체격검사표준안」은 완성되어 발표되었다.²³⁾ 각
학교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같은 해 2월과 3월에 걸쳐 입학시험을 진행하였
는데, 체력검사는 대개 3~4일 동안 치러졌다.²⁴⁾ 중등학교 입학시험에 체력
검사가 추가되었지만, 제한된 기간동안 그것을 진행하는 인력은 한정적이
었다. 그리하여 새롭게 점수화된 초등학교장 소견서의 영향력이 입시에 미
치는 영향이 증대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렇지만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상급 학교 진학열이 높아지는 추세였기에
학생들은 규정된 종목의 준비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²⁵⁾ 이렇듯 조선총
독부는 중등학교 입학시험에 체력검사를 추가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자신
의 체력을 일정한 기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유도하였다. 하지만 수류탄과 같
은 물체를 던지는 능력을 측정한다는 내용이 보여주듯, 이는 예비 병력을 담

22) 完全한 人間建設을 目標 中學入試制度改正, 『동아일보』, 1939년 10월 15일(석간), 2쪽; 横説堅説, 『동아일보』, 1939년 10월 16일(석간), 1쪽.

「中等學校第1學年入學者選拔要領」(1939)에 기재된 체력검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체능(體能)은 주력(走力), 도력(跳力), 투력(投力), 현승굴비력(懸乘屈臂力, 인용자 주: 매달리는 힘), 체조에 의하여 이를 관정할 것.

일. 주력 남자는 100미터, 여자는 50미터로 이를 검사할 것.

이. 도력 입폭도(立幅跳)에 의할 것.

삼. 투력 수류탄 모양을 써서 자기가 쓰는 손으로 입투자세(立投姿勢)에서 이를 검사할 것.

사. 현승굴비력 철봉 또는 횡목(橫木) 사용의 정면(正面) 현승굴비, 여자는 지상상비(地床상臂), 입복와굴비(立伏臥屈臂)에 의할 수 있음.

오. 체조 학교체조교수요목 제1표(第一表) 소학교의 교재 중에 대하여 적의(適宜)하게 이를 행할 것.

육. 전개(前掲) 외에 실시 가능하면 가급적 폐활량, 배근력(背筋力) 등의 항목을 추가할 것.

中等學校第一學年入學者選拔法要項, 『조선일보』, 1939년 10월 15일(석간), 2쪽.

23) 一般學父兄이아라들中等學校入學尺牘, 『조선일보』, 1940년 1월 27일(조간), 2쪽.

24) 府內十一個高等女學校- 오늘부터 體質體能檢査, 『매일신보』, 1940년 2월 29일, 2쪽.

25) 童心조리는 大邱各中學校 入學戰前哨打診①, 『동아일보』, 1940년 2월 3일(석간), 7쪽; 童心조리는 大邱各中學校 入學戰前哨打診②, 『동아일보』, 1940년 2월 4일(조간), 7쪽.

보하는 수단에 불과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체육관 다카마쓰 마타스케를 앞세워 추진한 또 다른 활동으로는 ‘대일본국민체조’의 제작과 보급을 들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1937년 10월 “일본 정신의 근본이 무도에 의해 배양된 무사도에 있으며, 그 정신을 취하여 검에 친숙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불문하고 일상 무도의 형(型)에 친숙해지게 해서 심신을 단련하여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 체득에 도움을 준다.”라는 취지의 「황국신민체조취의서」를 발표하였다. 무사도, 검과 같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황국신민체조’는 종래의 학교 체조에 검도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목검을 이용한 일종의 교련 동작인 ‘황국신민체조’를 전 조선의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명하고, 어용 체육조직인 조선체육협회를 내세워 이 체조의 보급에 힘썼다.²⁶⁾

조선총독부 학무국과 조선체육협회는 ‘황국신민체조’ 강습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이 체조에 필요한 목검의 구비 및 체조의 시행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였다. 이러한 조직적인 활동에 힘입어 ‘황국신민체조’는 초등학교에서 전문 학교에 이르기까지 체조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나갔다. 일본 정부와 교육계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창안한 ‘황국신민체조’에 관심을 두고 이를 일본에 도입하고자 하였다.²⁷⁾

이러한 상황에서 1938년 1월에 신설된 일본 후생성(厚生省)은 종래의 ‘라디오 체조’, ‘텐마크 체조’, ‘황국신민체조’ 등을 종합한 새로운 ‘국민체조’의 개발에 나섰다.²⁸⁾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 내에는 전일본체조연맹,

26) 조선총독부, 박찬승 외 역주,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下, 민속원, 2018, 1266~1267쪽; 朝鮮總督府學務局社會課・朝鮮體育協會, 「皇國臣民體操の精神と實施上の注意」, 『文教の朝鮮』 151, 朝鮮教育會, 1938년 3월.

27) 皇國臣民體操 内地에도 普及, 『조선일보』, 1938년 2월 8일.

28) ‘라디오 체조’는 정해진 시간에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내용에 맞추어 하는 체조로, 1920년대 초반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체신성 간이보협국은 ‘라디오 체조’가 자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문부성 등과 협의하여 라디오 체조 프로그램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1928년 11월 1일부터 일본에서도 ‘라디오 체조’가 시작되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라디오 체조’를 홍보하고 체조 모임 조직과 강연회 개최에 힘을 쏟았다. 조선에서는 1931년 경성방송국을 시작으로 ‘라디오 체조’가 도입되었으며 점차 다른 지역 방송국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체육협회·애국반 등을 내세워 ‘라디오 체조’를 장려하였지만, 라디오 보급률의 저하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황의룡·손환, 「일제 강점기의 라디오체

일본문화연맹 등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보건체조(집단체조)를 개발하여 소개하였다.²⁹⁾ 이러한 상황에서 후생성은 일본, 식민지 조선 등에서 고안된 다양한 형태의 체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과 연령대에 맞는 체조를 개발하는 작업이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선총독부 체육관 다카마쓰 마타스케는 도쿄에 파견되어 후생성이 개발하고 있는 체조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것의 보급 방안 연구에 참여하였다.³⁰⁾ ‘일반형’, ‘남성형’, ‘여성형’ 세 가지 형태로 구상되어 개발이 진행된 국민체조의 정식 명칭은 국민총동원의 의의를 담아 1939년 6월 ‘대일본국민체조’라 정해졌다.³¹⁾ 후생성은 문부성과의 협의를 통해 ‘대일본국민체조’를 소·중학교 체육수업의 정규 과정에 넣는 등, 1939년 12월의 발표를 앞두고 보급을 위한 사전 작업에 힘을 쏟았다.³²⁾ 이 과정에서 체육관 다카마쓰 마타스케는 일원화된 체조는 물론 전투 활동과 직접 관계가 있는 달리기, 던지기 등의 학교체육 활동의 중요성을 적극 선전하고 각종 체육 강습회에 강사로 활동하였다.³³⁾

전술했듯이 조선총독부는 축탁의 형식으로 체육관을 임명했다가 관제 개정을 통해 곧 체육관을 고등관으로 정식 임명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관제 개정이 늦어지면서 다카마쓰 마타스케는 1938년 12월 체육관으로 초빙된 이후부터 줄곧 축탁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 다카마쓰 마타스케는 1941년 초순 체육관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같은 해 4월 5일자로 고사카 다카오[小

조 보급과 사회적 영향], 『한국체육사학회지』 14(3), 한국체육사학회, 2009 참조.

29) 이병진·황의룡, 「일제강점기 “대일본국민체조”의 보급과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55(4), 한국체육사학회, 2016, 3쪽.

30) 國民體操를 勵行! 厚生은 強壯한 身體로부터, 『동아일보』, 1939년 1월 17일(조간), 2쪽.

31) 厚生, 文省制定體操 全國에 一齊實施, 『동아일보』, 1939년 6월 8일(조간), 2쪽; “大日本體操” 厚生省制定案內容, 『조선일보』, 1939년 6월 25일(조간), 2쪽.

32) 大日本國民體操 實施를 通牒, 『동아일보』, 1939년 10월 7일(석간), 2쪽.

33) 夏季體育講習 八月十五日부터, 『동아일보』, 1939년 7월 15일(석간), 2쪽; 冬期體育講習 廿五日부터 四日間, 『조선일보』, 1939년 12월 12일(조간), 2쪽; 高松又輔, 「戰力增強の體育」, 『朝鮮』 291, 朝鮮總督府, 1939년 8월; 高松又輔, 「時局と學校體育」, 『朝鮮の教育研究』 133, 朝鮮初等教育研究會, 1939년 9월호.

坂隆雄]가 고등관의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조선총독부 학무국 체육관에 임명되었다.³⁴⁾ 이는 1940년 12월 27일자로 조선총독부관제 개정이 이루어진 결과였다.³⁵⁾

1901년 나가노현[長野縣] 출신인 고사카 다카오는 1924년 만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생리학 교실에 들어가 발한(發汗) 연구에 종사하였다. 1929년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의 펠로우십(fellowship)에 선정되어 베이징(北京), 런던(London) 등지의 기관에서 생리학 연구를 이어나갔다. 1930년에는 교토(京都)제국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나가노현 동향(同鄉)으로 관동청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야마오카 만노스케[山岡萬之助]의 권유로 고사카 다카오는 만주로 돌아와 관동군 군의관 및 흥아원(興亞院) 기사로 활동하였다.³⁶⁾

고사카 다카오가 임명될 당시 조선총독은 미나미 지로[南次郎, 재임: 1936.8.~1942.5.]였다. 1930년대 중반부터 관동군 사령관으로 활동한 미나미 지로는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만주에서 활동한 인물을 조선으로 불러들여 중책을 맡겼다.³⁷⁾ 이러한 인사의 특성은 미나미 지로가 강력하게 추진한 ‘황민화 정책’을 담당할 학무국에 그대로 드러난다. 학무국장 시오바라 도키사부로(滿洲국 국무원 총무청 인사처장, 학무과장 다카오 진효는 주만대사관(駐滿大使館) 조선과장으로 근무하였다. 고사카 다카오를 학무국 체육관으로 임명한 배경도 이러한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다.

고사카 다카오의 연구·조사 경험 또한 그의 학무국 체육관 임명에 큰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랫동안 생리학을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주 지역민의 주거, 식량, 식수, 전염병, 가축위생 등을 면밀히 조사 연구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고사카 다카오는 만주 지역에 대한 일본의 지배 체제

34) 『朝鮮總督府官報』, 1941년 4월 12일.

35) 『朝鮮總督府官報』, 1941년 1월 8일.

36) 體育官을 任命 初代에 小坂隆雄氏, 『매일신보』, 1941년 4월 8일.

고사카 다카오는 소장(小腸)에서 유래하는 위산 분비 억제 물질을 발견하고, 이를 엔테로가스트론(enterogastrone)이라 명명하였다. 또한 인슐린 방출, 혈당 이용 등 대사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였다.

37) 岡本眞希子, 『植民地官僚の政治史: 朝鮮・臺灣總督府と帝國日本』, 三元社, 2008, 547~554쪽.

구축과 유지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작을 주도하였다.³⁸⁾

1941년에 들어와 조선총독부가 체육 전문가 대신에 의학을 전공한 생리학자를 체육관으로 정식 임명한 것은 체육활동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정책에 한계가 드러난 까닭이다.³⁹⁾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는 체조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중등학교 입시제도까지 바꾸면서 조선인의 체력이 증진되길 기대하였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조선인의 체력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주지하듯 체력은 운동 이외에도 식사의 양과 질, 주거지의 위생 상태, 전염병, 의료시설 등과 직결되어 있다. 전시 체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연 재해까지 겹쳐 식량 부족 사태는 나아지지 않았으며, 전염병 환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의료시설로 대표되는 병원은 1937년 대비 1941년 현재 늘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경성부에 집중된 상황이었다. 이렇듯 체력향상과 관련된 근본적 문제가 상존한 상태였지만, 조선총독부는 체육 활동 강화에만 집중했던 것이다.⁴⁰⁾

고사가 다가오는 체육관으로 부임한 직후부터 학교의 급식 현황, 위생·체육시설 등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1941년 중순 ‘학원후생(學園厚生) 강화’의 기치 아래 학교위생실(혹은 건강상담실)의 유무와 면적, 건강 상담의 횟수와 내용, 위생시설 경비, 전속 치과의(齒科醫)의 유무와 수당, 학교의(學校醫)의 근무상황·학력, 학교간호부의 유무·학력·연령, 학교 급식의 영양상태·식비·배급방법, 체육시설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⁴¹⁾ 식민지 조선에 처음으로 단행되는 이 조사의 의미는 고사가 다가오의 발언에 잘 드러난다.

이번 조사의 결과로 현재 학교체육 위생시설의 전모(全貌)가 드러날 것이며

38) 小坂隆雄, 『滿洲開拓衛生の基礎』, 金原書店, 1941 참조.

39) 중일 전쟁 발발 직후 일본의 전력(戰力)으로 조선인 훈련병을 진단한 일본군 관계자들은 이미 체육활동과 더불어 조선인의 보건 위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신주백, 앞의 논문, 258~259쪽.

40) 김고은, 앞의 논문, 36~39쪽.

41) 學園厚生運動強化 醫務, 給食, 體育館 施設 등을 調査, 『매일신보』, 1941년 7월 24일, 2쪽.

이것을 토대로 하여 학교체육 위생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그 대책이 서게 될 것이다. 지난번 문부성에서 열린 관계자 회의에서도 이러한 학교체육과 위생문제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던 만큼, 앞으로 국민의 체력 증진도 이 학교체육 위생시설을 통하여 많은 보급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체육 장려도 좋지만 이와 동시에 의학적 시설과 후생적 지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므로 이번엔 전면적 조사를 하고 명년도부터 학교체육 위생시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이것은 시국에 비추어 튼튼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의미에서도 절대로 필요하므로 명년도 예산에도 이것으로 계상하도록 준비중이니까 물론 통과 될 줄로 믿는다. 더욱이 학교의와 간호부의 배치, 또는 영양적인 급식도 절대로 필요하며 체육관 시설도 필요하므로 이 방면에 많은 지도와 보조도 할 계획이다.⁴²⁾

이같이 고사카 다카오가 기획하여 조선총독부가 처음으로 단행한 전국 단위의 학교 조사 활동과 지원 계획은 전시 상황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조사는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무국에 보고를 올리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고사카 다카오는 이들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전국의 학교를 시찰하며 관련 조사 연구 활동을 전개하였다.⁴³⁾

한편으로 고사카 다카오는 학교체육을 전담하는 조직의 운영을 통해 학교체육이 진흥된다는 생각 아래에 관련 기관의 창설을 기도하였다.⁴⁴⁾ 그것은 1942년 5월 조선학교체육진흥회의 창립으로 실현되었다.

3. 조선학교체육진흥회의 창설과 운영

1941년 12월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의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하며 침략전쟁의 전장을 태평양 일대로까지 넓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총독부는 교

42) 現施設을 再檢討 本府小坂 體育官 談, 『매일신보』, 1941년 7월 24일, 2쪽.

43) 小坂體育官來馬, 『부산일보』, 1941년 9월 27일, 2쪽; 小坂體育官來馬, 『부산일보』, 1941년 9월 30일, 2쪽.

44) 二本建て體育振興 小坂體育官は語る, 『부산일보』, 1942년 5월 25일, 2쪽.

통·운수를 비롯하여 각 분야에 대한 원활한 통제를 위해 분야별 단체의 통합에 힘썼다. 체육계의 경우 1942년 2월 조선체육진흥회가 발족하여 조선체육협회를 비롯한 모든 체육관련 조직을 통합하였다.⁴⁵⁾

체육계의 단체를 조선체육진흥회로 통합한 조선총독부는 곧이어 학교체육을 전담하는 단체 창설에 나섰다. 체육관 고사가 다가오는 학교체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선수 양성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그는 특정한 체육 종목을 위해 훈련받은 선수들이 학교 대항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애교심을 갖고 이는 애국심과 연결되는 것이기에, 선수양성 제도 그 자체는 필요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일반 학생을 배제한 채 선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폐단이라고 주장하였다.⁴⁶⁾ 이에 조선총독부는 학교체육 지도방침을 발표하고, 조선학교체육진흥회 조직에 착수하였다. 학교체육 지도방침은 조선학교체육진흥회 운영의 근간으로 작용하였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은 청소년 학도를 심신 일체로 훈련하여 건전 유위한 황국신민으로 양성함으로써 평시 전시를 일관하는 종합 전력을 기를 것.
2. 황국신민의 실천적 기초를 훈련 양성하는 것이 학교 체련교육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을 자각하여 학교체육의 내용을 쇄신 정비하는 동시에 이것을 일반 교육체계와 일체로 통합시킬 것.
3. 체력의 연성 향상은 국방국가적 견지에서 어떠한 임무라도 모두 할 수 있는 강력하고 지구적인 종합 체력을 연마하는데 그 궁극의 목적을 두게할 것.
4. 체력의 연성 향상을 통하여 대국민다운 지조와 신념을 확립하게 할 것.
5. 체육에서 일체 자유주의적이요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버리고 국가적 요청과 국민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황국신민을 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소년학

45) 조선체육진흥회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손환, 「조선체육진흥회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4(2), 한국체육과학회, 2005.

46) 學徒와 選手問題 本府學務局 小坂體育官談, 『매일신보』, 1942년 4월 13일, 2쪽.

- 도들이 국가에 대한 군센 의무를 가지도록 할 것.
6. 소수 선수나 운동을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전직원 생도가 체육 운동에 전부 참가할 것.
 7. 체육운동의 종목은 구습에 구애하지 말고 각기 실정에 알맞도록 하되 국방적인 훈련을 시키고 청소년의 기초가 되는 체력을 연성하는데 중점을 둘 것.
 8. 각 경기회는 승패를 다투는데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시중 운동 정신을 존중하여 경기 한가지라도 학도를 수련시키는데 도움되게 할 것.
 9. 종래의 선수제도를 일신하여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사람이 경기에 출장하도록 할 것.
 10. 특히 여자 생도의 체육문제는 제2세 국민들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철저히 보급시켜서 국민체력 향상의 기초가 되게 할 것.⁴⁷⁾

인용한 자료에서 보이듯 6, 7, 9항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소수 선수 중심의 체육활동 지양과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가 조선총독부가 지향하는 학교체육 정책이었음을 보여준다. 1942년 4월 조선총독부가 창설한 조선학교체육진흥회의 활동도 이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⁴⁸⁾ 진흥회 규약의 주요 내용을 통해 사업 내용과 조직 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학교체육진흥회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조선학교체육진흥회라 칭하고 사무소를 조선총독부 학무국 내에 둔.

제2조 본회는 조선총독부 방침에 따라 조선에 있는 학교체육의 건전한 진흥을 기획하고 심신의 건전한 진흥을 기도하고 심신 강건한 황국신민을 연성하여 전력 증강의 배양을 목적으로 함. 전항의 학교체육은 체육운동, 체

47) 國防力 確立을 目標 選手中心主義를 一擲, 學校體育指導方針決定, 『매일신보』, 1942년 4월 18일, 2쪽.

48) 참고로 당시에 조선체육진흥회는 ‘체진(體振)’, 조선학교체육진흥회는 ‘학진(學振)’이라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육훈련 및 학교위생을 말함.

제3조 본회는 전조(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 사업을 행함.

1. 학교체육의 지도 장려 및 상호연락.
2. 학교체육에 관한 여러 종류의 조사 연구.
3. 2도(道) 이상의 학교 연합 체육대회 개최.
4. 지회의 통할 및 지회의 조성(助成).
5.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본회에서는 지회로 대학전문학교체육진흥회 및 학교체육 각도 진흥회를 둬.

제5조 지회는 본 규약에 준하여 규약을 정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규약을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함.

제2장 역원

제6조 본회에서는 다음 역원을 둬. 회장 1명, 이사 약간명, 평의회 약간명, 간사 약간명.

전항의 정한 외 본회의 고문 및 전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음.

제7조 회장은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으로 정함.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총 관리함.⁴⁹⁾

규약의 내용과 같이 조선학교체육진흥회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을 회장으로 조직되었으며, 학교체육의 진흥을 통해 학생들의 전력 강화를 사업 목표로 삼았다. 대학과 전문학교를 총괄하는 ‘대학전문학교체육진흥회’를 비롯하여 각 도에 지회 설립을 규정한 사실도 발견된다. 이들 지회 중에서 대학전문학교체육진흥회가 일찍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학전문학교체육진흥회는 1942년 4월 23일 경성고등상업학교에서 회합하고 대학 및 전문학교 대항 경기 종목 중에서 축구, 정구, 농구 등 공을 사용하는 구기 종목을 전부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본 진흥회는 이들 구기

49) 學校體育振興會 設立趣旨及規約을 發表, 『매일신보』, 1942년 5월 10일, 2쪽.

종목 경기를 폐지함으로써 ‘선수 중심 체육’의 폐해가 극복되고, 대회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 주장하였다.⁵⁰⁾ 대학전문학교체육진흥회는 구기 종목을 대신하여 국방과 관련된 이른바 국방경기(國防競技) 종목을 확충하여 최대한 많은 학생을 대회에 출전시키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는 전술한 학교체육 지도방침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국방경기는 1939년 일본에서 개최된 제10회 메이지(明治)신궁 국민체육 대회의 경기종목으로 처음 도입되었다.⁵¹⁾ 국방경기의 내용은 견인(牽引), 수류탄 투척 돌격, 장애물 통과, 토양(土壤)운반, 행군으로 구성되었다. 국방경기는 1943년 제13회 대회부터 ‘전장운동(戰場運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⁵²⁾

식민지 조선에서는 1939년 개최된 제15회 조선신궁 경기대회의 육상 종목에 수류탄 투척 및 중량(重量)운반 계주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1939년 중순부터 지역 사회 단위로 국방경기를 개최하는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식민지 조선에서 국방경기는 1940년 제16회 조선신궁 경기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 대회의 종목으로 자리잡았다.⁵³⁾

대학전문학교체육진흥회의 결정에 대해 각 학교에서는 “구기 종목에도 많은 학생이 참여하며, 협동 정신 배양에 도움이 된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심지어 또다른 체육계 어용단체인 조선체육진흥회 내부에서조차 “구기

50) 學園體育에 晝時期蹴球, 籠球, 庭球 等の 對抗競技 廢止, 『매일신보』, 1942년 4월 25일, 2쪽.

51) 메이지신궁국민체육대회는 1924년 ‘메이지신궁경기대회’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다. 제3회 대회부터 메이지신궁체육회가 주최를 맡았다. 1939년 제10회 대회부터 후생성으로 주최 관서가 변경되었으며, 1942년 제13회 대회부터는 ‘메이지신궁국민연성(練成)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방경기는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으로 근무한 호카소노 스스무(外園進)가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外園進, 『國防競技の話』(目黒書店, 1942)를 참조할 수 있다.

52) 加賀秀雄, 「わが国における近代スポーツの展開過程に関する実証的研究:「明治神宮競技大会」の戦時体制化をめぐる」, 『名古屋文理大学紀要』3, 名古屋大学, 2003.

53) 大邱で國防競技大會, 事變下の體力増強へ, 『조선신문』, 1939년 6월 20일; 金誠, 「朝鮮半島における植民地主義とスポーツに関する研究」, 神戸大学校 博士學位論文, 2013, 54쪽. 국방경기에서는 일정한 인원로 구성된 팀 단위로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상기 다섯 종목에 대한 종합성적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였다. 예컨대 제16회 조선신궁 경기대회의 경우 학생 16명이 한 팀을 구성하였다.

도 국방경기와 다른 구기 나뭇의 특색을 가지고 있기에 심신단련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근거를 중심으로 한 비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대학전문학교체육진흥회의 결정을 부정하지 않았다.⁵⁴⁾

1942년 6월 대학전문학교체육진흥회는 ‘제1회 대학 전문학교 체육종합대회’를 경성부에서 개최하였다. 대학전문학교체육진흥회는 3,500여 명의 학생을 동원하여 국방경기, 수영, 활공(滑空), 유도, 씨름과 같은 다섯 종목으로 이 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결정 사항이 조선총독부의 체육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임을 대외에 알렸다.⁵⁵⁾

나아가 대학전문학교체육진흥회는 1942년 10월에 ‘제1회 여자전문학교 체련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들 활동을 바탕으로 대학전문학교체육진흥회는 학교체육 지도방침의 내용을 실천에 옮겨나갔다.⁵⁶⁾ 별도의 종합 성적을 내지 않는 이들 대회는 ‘대회’라기 보다 국방과 직결된 집단적인 체육활동을 선보이는 장이었다.

대학전문학교체육진흥회의 활동 대상은 조선 내 학생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 단체는 조선장학회와 공동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조선으로 잠시 돌아온 전문학교 이상의 재일 유학생들을, 조선 내 전문학교 이상의 학생과 연계하여 합숙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⁵⁷⁾ 교학연수소, 경성운동장, 경성사범학교 무도장 등지에서 진행된 이 사업은 재일 조선인 유학생의 연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54) 앞의 기사, 『매일신보』, 1942년 4월 25일, 2쪽; 存廢歧路의 學園球技最後의 斷案을 注目 各道學務, 體育官會議를 招集, 『매일신보』, 1942년 5월 7일, 2쪽.

55) 國防競技로 새 出發 昨日, 大學專門綜合體育大會盛況, 『매일신보』, 1942년 6월 22일, 3쪽. 대학 전문학교 체육종합대회가 개최된 이후에도 구기 종목을 제한하는 모습을 둘러싸고, 조선학교체육진흥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체육관 고사카 다카오는 책임 소재를 대학전문학교체육진흥회에 돌리며, 학무국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學徒體育에 對하여 學務局(體育)囑託 小林晃夫記(一), 『매일신보』, 1942년 7월 12일, 2쪽; 學徒體育에 對하여 學務局(體育)囑託 小林晃夫記(二), 『매일신보』, 1942년 7월 12일, 2쪽; 學徒體育에 對하여 學務局(體育)囑託 小林晃夫記(三), 『매일신보』, 1943년 7월 15일, 2쪽.

56) 絢爛美大祭典戰時調女子專門體鍊大會盛況, 『매일신보』, 1942년 10월 27일, 3쪽. 이 대회에는 이화·숙명·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학생 600여 명이 참석하였다.

57) 夏季合同修鍊實施 内地在學生과 朝鮮內 學生交驛, 『매일신보』, 1942년 7월 24일, 3쪽.

재일 조선인 유학생의 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선총독부는 이들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⁵⁸⁾ 재일 조선인 유학생은 대다수는 학비가 여유롭지 않았기에 일본인과 금전적인 문제를 야기하거나, 고학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 및 사상운동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들의 일부는 식민지 조선에 비해 사회 문화적으로 통제가 덜한 일본에서 다양한 자료를 접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식민지배체제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을 제기하였다. 대학전문학교체육진흥회가 조선장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러한 활동은 이들 유학생에 대한 회유와 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이들을 병력과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렇듯 대학전문학교체육진흥회는 조선학교체육진흥회의 설립과 동시에 등장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각 도의 학교체육진흥회는 지역의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립되었다. 각 도의 학교체육진흥회는 회장인 도지사과 부회장인 내무부장을 주축으로 하여 학무·위생과장, 각 초등·중등학교장을 임원으로 조직되었다.⁵⁹⁾

각 도의 학교체육진흥회는 육상 종목, 검도, 궁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주민과 체육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강습회를 계획하였다. 그 계획을 들여다보면 ‘건민운동(健民運動)’, ‘라디오 체조회’, ‘하기(夏期)단련운동’, ‘동기(冬期)단련운동’ 등과 같이 도민(道民)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활동을 상당수를 차지하였다.⁶⁰⁾ 이를 통해 조선학교체육진흥회의 지부로 각 도에 설치된 학교체육진흥회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을 사업 활동의 범위에 포함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⁶¹⁾

58) 1920년부터 재일 조선인 유학생의 수는 급증하기 시작하여 1940년에는 2만 명을 넘겼다. 김성학, 『서구교육학 도입의 기원과 전개』, 문음사, 2001, 200쪽 참조.

59) 忠北學徒體振 役員과 計畫案發表, 『매일신보』, 1942년 6월 26일, 2쪽.

60) 조선에서의 ‘건민운동’은 조선인의 건강을 위한 실제적 조치와 유리된 채, 조선인을 효과적으로 전쟁에 동원하는 조치였다. 최규진, 「전시체제기 국민체력관리와 건민운동」, 『역사연구』 47, 역사학연구소, 2023, 362~389쪽 참조.

61) 黃海學校體振 鍛鍊計畫案을 發表, 『매일신보』, 1942년 6월 18일, 2쪽.

4. 맺음말

중일 전쟁 발발 이후 본격적으로 조선인의 병력 동원을 획책한 조선총독부는 「육군특별지원병령」의 발표와 함께 청년층을 중심으로 조선인의 체력 증진에 관심을 쏟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총독부는 1938년 12월 학무국에 체육관을 최초로 임명하고, 관련 문제 조사와 정책 수립을 전담하게 하였다. 체육관은 교학과 더불어 '총후 학원 재건설의 총참모본부'로서 학생의 신체와 체력에 대한 '표준형' 설정을 위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 '표준형'을 기준으로 삼아 중등학교 입학시험에 체력검사를 추가함으로써, 학생들의 운동을 촉진하려 하였다. 또한 체육관은 '대일본국민 체조'의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이의 보급에 힘을 기울였다.

조선총독부는 체조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중등학교 입시제도까지 바꾸면서 조선인의 체력이 증진되길 기대하였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조선인의 체력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1941년 4월, 의학을 전공하고 생리학을 연구한 인물을 새로운 체육관으로 발탁하고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신임 체육관은 만주 지역민의 주거, 식량, 식수, 전염병, 가축위생 등을 면밀히 조사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 내 학교의 급식 상황, 위생·체육시설 등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을 기획하고 이 끝냈다.

일본이 침략전쟁의 전장을 태평양으로 확대하는 상황인 1942년 4월, 조선총독부는 학무국장을 회장으로 하는 조선학교체육진흥회를 창립하였다. 그에 따라 이 단체의 지부로 대학전문학교체육진흥회를 비롯하여 각 도에 체육진흥회가 조직되었다. 조선학교체육진흥회의 발족과 함께 등장한 대학전문학교체육진흥회는 각종 대회 개최를 통해 조선총독부가 학교체육을 보다 정교하게 통제하기 위해 마련한 학교체육 지도방침을 구현하였다. 아울러 조선장학회와 연합하여 재일 조선인 유학생의 체육 연성 활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각 도에 조직된 학교체육진흥회는 지역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체육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사업의 대

상을 학생에 한정하지 않았다.

이렇듯 체육관과 조선학교체육진흥회는 일제 말기 조선총독부 학교체육 정책을 뒷받침하는 주춧돌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들 학교 체육 전문기관의 정책 기획, 조사 연구와 정책 수행 활동을 기반으로 체력을 연성하는 ‘황국신민’의 육성을 추구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日本官報』, 『朝鮮總督府官報』
- 『동아일보』, 『매일신보』, 『부산일보』, 『조선일보』, 『文敎の朝鮮』, 『朝鮮の敎育研究』
- 広島高等師範学校附属中学校中等敎育研究会 編, 『中等敎育に於ける各科敎授法の新研究』, 京極書店, 1938.
- 小坂隆雄, 『滿洲開拓衛生の基礎』, 金原書店, 1941.
- 강동진, 『일본근대사』, 한길사, 1985.
- 김성학, 『서구교육학 도입의 기원과 전개』, 문음사, 2001.
- 조선총독부, 박찬승 외 역주,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中, 민속원, 2018.
- _____,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下, 민속원, 2018.
- 文部省 編, 『學制百年史』, 1972.
- 岡本眞希子, 『植民地官僚の政治史: 朝鮮・臺灣總督府と帝國日本』, 三元社, 2008.
- 김고은, 「전시총동원을 위한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청년층 체력향상책의 실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점만, 「韓國 學校體育의 歴史的 背景과 그 病弊에 對한 考察: 初等體育을 中心으로」, 『논문집』 2(1), 진주 교육대학교, 1968.
- 노영구, 「日帝時의 初等學校 體育科 敎育課程에 關한 考察」, 『논문집』 28, 대구교육대학교, 1993.
- 신주백, 「일제 말기 체육 정책과 조선인에게 강제된 건강」, 『사회와 역사』 68, 한국사회사학회, 2005.
- 안자코 유가,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이병진 · 황의룡, 「일제강점기 "대일본국민체조"의 보급과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55(4), 한국체육사학회, 2016.
- 이학래, 「日帝 末期의 韓國體育史 研究 -軍國主義的 性格을 中心으로-」, 『한국학논집』 15,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9.
- 최규진, 「전시체제가 국민체력관리와 건민운동」, 『역사연구』 47, 역사학연구소, 2023.
- 최현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교학관제와 식민지 교육행정」, 『국학연구』 47, 한국국학진흥원, 2022.
- 하정희 · 손환, 「일제강점기 황국신민체조의 보급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20(2), 한국체육사학회, 2015.
- 황의룡 · 손환, 「일제 강점기의 라디오체조 보급과 사회적 영향」, 『한국체육사학회지』 14(3), 한국체육사학회, 2009.
- 손 환, 「조선체육진흥회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4(2), 한국체육과학회, 2005.
- 加賀秀雄, 「わが国における近代スポーツの展開過程に関する実証的研究: 「明治神宮競技大会」の戦時体制化をめぐって」, 『名古屋文理大学紀要』 3, 名古屋大學, 2003.
- 崎田嘉寛 · 若槻稜磨, 「體育運動審議會「體育運動ノ合理的振興方策ニ関スル件答申」(1930)の成立過程-長与又郎日記を手掛かりとして-」, 『體育學研究』 38, 體育史學會, 2021.
- 金 誠, 「朝鮮半島における植民地主義とスポーツに関する研究」, 神戸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 西尾達雄, 『日本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学校体育政策』, 明石書店, 2003.

The Institutionalization Policy of School Sports Professional Organ during Japanese Occupation Last Period

CHOI, Hyunwoo*

This thesis examined the ‘Physical Education Bureaucrat[體育官]’ & ‘Chosen School Sports Promotion Association[朝鮮學校體育振興會]’ organized by the Chosen Government General[朝鮮總督府] during Japanese occupation last period.

Chosen Government General appointed Physical Education Bureaucrat to the Academic Affairs Bureau[學務局] twice in December 1938 and April 1941. The Physical Education Bureaucrat first appointed was a person who studied gymnastics. He conducted a investigations to establish the ‘standard type[標準型]’ of body and physical strength of Korean students. Chosen Government General added a physical fitness test to the secondary school entrance exam based on the ‘standard type’ calculated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s. Through this, Chosen Government General tried to promote physical activities of the students. Chosen Government General expected to improve the physical strength of the students through strengthening exercises, but failed. Thus, in April 1941, Chosen Government General selected a person who majored in medicine and studied physiology as a new Physical Education Bureaucrat. In addition, with the help of Physical Education Bureaucrat, Chosen Government General investigated the school’s meal conditions and hygiene and sports

* Kun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History, Assistant Professor

facilities.

In April 1942, Chosen Government General founded the Chosen School Sports Promotion Association headed by the undersecretary of Academic Affairs Bureau[學務局長]. This association was organized into the ‘University & Colleges Sports Promotion Branch[大學專門學校體育振興會]’ and the School Sports Promotion Branches of each province[道]. University & Colleges Sports Promotion Branch realized the school sports guidance policy prepared by Chosen Government General through holding various events. School Sports Promotion Branches organized in each province promoted sports programs not only for students from local schools but also for the entire local people.

The policy planning & research, policy realization conducted by Physical Education Bureaucrats & Chosen School Sports Promotion Association contributed to the colonial education system to mobilize Korean students in the Japanese invasion war.

Key words : Physical Education Bureaucrat, Chosen School Sports Promotion Association, Physical education policy, Physical fitness test, Colonial Physical Education